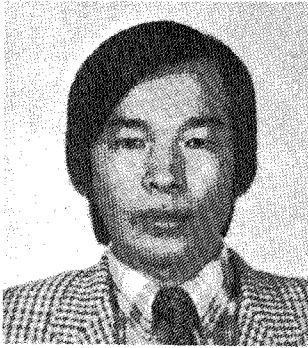


양계산업의 미래는 양계인이 결정한다



이 승 우

한협축산 영업부장

지난달 농수산부 발표에 의하면 70년 이후 84년까지 국민 1인당 곡물 소비량이 14% 감소되었다 한다. 반면에 쇠고기는 84년도 1인당 연간 소비량이 2.6kg으로 지난 70년에 비해 216%, 돼지고기는 8.4kg으로 323%, 닭고기는 2.9kg으로 207%가 각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소득이 증가됨에 따라 식생활 개선을 통한 축산물 소비는 계속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핑크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양계업계에 깊게 드리워진 먹구름은 좀처럼 사라질줄 모르고 있다. 따라서 먹구름의 정체를 살펴보면서 업계가 대응해야 할 몇가지 전 해를 피력코자 한다.

양계업은 과거 많은 발전을 해온 것처럼 금후에도 계속 발전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사회발전과 더불어 발전에 편승하려는 안이한 사고는 큰 잘못일 것이다. 작금에 이르러 주목되고 있는 것처럼 대자본가가 축산업에 진출하고 있으며, 무역자유화로 계란이나 계육등 축산물은 더욱 개방된 상태로 수입되어질 여건하에서 우리 업계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스스로 강구해야할 때가 아닌가 한다.

여하한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만큼 어떠한 난관도 물리치고 성취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특히 우리 양계업계는 이점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리 만큼 이골이 나있다. 그러나 프로야구에서 타자가 무턱대고 배트를 힘차게 휘두른다고 우수한 타자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보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면서도 가장 기초적이고 상식적인 사고를 가져야 할 것이다.

지난 과거에는 다소 무계획적이고 모험적인 투자도 럭키보이(행운아)를 창조하곤 했다. 기업가의 윤리관은 양축가의 상도덕을 무질서하게 했으며, 가면적 상행위로 인한 질적 저하로 불신풍조가 만연한 가운데에서도 경영은 존속되어왔다. 이는 70년대 이후 급속한 소비증대, 업계의 기반조성 미성숙, 정부의 보호육성 정책 등의 영향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절대물량의 확대는 업계의 대형화, 기계화, 현대화를 재촉하여 계속되는 확대재산으로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는 더욱 어려움을 겪으며 업자는 더욱 곤궁(?)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만 같다.

우리는 무수히 많은 업자의 희망성채를(특히 부화업과 육계업)보아 왔으며, 현재에도 많은 분들이 진퇴양난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외라고 할 수있는 사람이 도시근교에서 땅값(地價) 상승으로 보상받는자를 성공했다고 말한다.

이렇게 딱하고 안타까운 노릇도 그리 혼치는

않으리라 생각한다.

왜 그럴까? 다른 방도는 없을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은 귀한가 하면 어떤 사람은 천하고, 또 누구는 가난한가 하면 누구는 부유하여 서로 차등이 있다. 이것이 어째서 그러한가를 周나라 무왕(武王)은 그의 왕사(王師)인 강태공에게 물어 보았다. 강태공은 답하기를 富한 이는 쓰는데 절제가 없고 富하지 못한 이는 집에 십도(十盜)가 있기 때문이라 했다.

철 따라 익은 것들을 제때에 거둬들이지 않는 것이 첫째의 盜요,

거둬들여 잘 보관하지 않는 것이 둘째의 盜요,

일없이 등불을 켜두고 잠자는 것이 셋째의 盜요,

게을러서 경작하지 않는 것이 넷째의 盜요,

공력(功力)을 들이지 않는 것이 다섯째의 盜요,

지극히 해로운 일만 오로지 행하는 것이 여섯째의 盜요,

딸을 너무 많이 기르는 것이 일곱째의 盜요,

낮잠이나 자고 일어나기를 게을리하는 것이 여덟째의 盜요,

술과 환락을 탐하는 것이 아홉째의 盜요,

남을 몹시 시기하는 것이 열째의 盜라 하였다.

그렇다! 우리 업계는 첫째로 자성하는 자발적인 정신혁명부터 이룩해야 하겠다. 우리 자신이 어디에 허(虛)가 있으며 어떻게 착(錯)이 있는가를 살펴보자 자기가 뿌린 씨앗은 자신이 거두는 법이다. 오늘날 업의 혼돈과 무절제한 혼란은 우리 자신이 행한 결과이다.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졸(卒)스러움도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

둘째로 업계는 업종별로 명실상부한 단합을 이룩하여 선의의 경쟁을 도모하는 참된 기업운

리를 확립해야 하겠다. 과도한 경쟁으로 야기되는 자체약화(自體弱화), 나아가서 물량과잉으로 피차가 자멸하는 사례를 우리는 허다히 보아 왔기 때문이다.

세째로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제반 노력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안타깝게도 우리 양계업은 사료, 약품, 종계 등등 9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바, 원가절감을 통한 노력은 곧 외화 절약이라고 볼 수 있다. 원료의 수입의존도가 높아 양계 산업은 보세가공업 정도로 밖에 평가되지 못하는 현 시점에서 더 큰 노력을 경주 해야겠다. 나아가서 차체에 국내사료자원 개발, 국산 종계의 개량 등을 통하여 우리가 애써서 벌어들인 이익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모순을 없애야만 한다.

네째로 업자가 적극적인 자세로 스스로의 권익을 확보해야 한다. 그 일례로 양계산물 소비 증대를 위한 노력은 업자가 주체자로 의무를 다해야 제3자가 해주기를 바라는 안되겠다. 오늘의 가격양등은 내일의 소비위축을 가져온다는 진리하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대인(大人)의 길을 가야 하겠다.

또한 정부의 입법과정에도 적극적인 참여로 스스로의 권리를 창출해야 한다. 무허가건물 양성화, 축사의무 소독,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 등에 업계는 얼마나 능동적인 참여를 해왔는가? 사후 약방문 격으로 문제가 노출되고 나면 이구동성으로 아우성치는 어리석음도 이제는 그만하자.

난세에 영웅이 갈구되듯이 불황의 혼미를 거둬주고 있는 우리 업계는 실로 훌륭한 지도자를 바라는 바이며, 당국은 업계의 다각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좋은 시책을 주길 바라며,업자는 상기한 평범한 몇가지를 실천함으로써 업계의 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해 본다. *